

다니엘의 책 - 번호 196

예언적 병행과 신적 실망: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세 백성의 계시적 여정

Jeff Pippenger
2024-04-27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가 표상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백성을 상징하는 요한은 자신이 표상하는 그 역사 속에 실망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었고, 그 실망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밀러주의자들에게는 봉함되어 있었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의 한 요소였다.

내가 하늘에서 들은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퍼져 있는 작은 책을 받아라.' 이에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가져다가 다 먹어라. 그것이 네 배를 쓰게 하겠으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었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그것을 먹자마자 내 배는 쓰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0:8-10.

10절에서 요한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강한 천사가 내려온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에 이르는 역사를 나타낸다. 그는 상징적으로 그 역사를 제시하기 전에, 하늘에서 들은 '그 음성'으로부터 작은 책을 먹으면 '그것이 네 배를 쓰게 하겠으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는 말을 듣는다. 그 쓰디쓴 실망은 밀러주의자들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었고, 그 실망이 닥치기 전에 그것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은 아니었다. 그러나 요한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 즉 사건들의 윤곽과 관련된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말세의 백성을 대표한다.

그 거룩한 역사는 말세의 백성에게 시험이 임할 것임을 밝히며, 그 시험은 그들이 시험 이전에 미리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던 어떤 것에 기초한 것이겠지만, 밀러주의자들이 겪은 것과 동일한 경험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전개와 완전히 일치했는데, 이는 일곱 우레 또한 "차례대로 드러나게 될 장래의 사건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비록 밀러주의자들의 기초가 되는 역사를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세 백성은 밀러주의자들과 같은 사건 전개를 재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밀러주의자들을 시험했던 것—그들에게는 미리 알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던—과는 다른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을 떼실 때가 임박할 때까지 봉함되어 있던 어떤 요소로 인해 초래되며, 이는 다니엘 11장 40절의 숨겨진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봉함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백성을 시험하도록 의도된 것이었고, 그 시험은 밀러주의자들이 시험받았던 그 이정표와 일치할 것이다. 왜냐하면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첫 성취에서든 마지막 날들의 최후 성취에서든, 일곱 우레는 "사건들의 개요"요 "그 순서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널리 간과되어 온 사실은, 요한이 1840년 8월 11일 작은 책을 가지고 강림하신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대표하듯이, 바로 그 동일한 역사가 1844년 4월 19일 둘째 천사의 강림으로도 대표되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실망은 요한의 실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는 1840년 8월 11일 작은 책을 먹은 뒤 1844년 4월 19일에 실망을 겪었다. 그 실망이 이르렀을 때 둘째 천사는 손에 "기록"을 들고 강림했다.

또 다른 강력한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라는 명을 받았다. 예수께서 그의 손에 한 문서를 쥐여 주셨고, 그가 땅에 내려오면서 외쳤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때 나는 실망한 이들이 다시 하늘을 우러러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마치 잠든 것처럼 멍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듯 보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흔적이 보였다. 실망한 이들은 성경을 통해 자신들이 지체의 때에 있음을, 그리고 그 이상이 성취되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함을 알았다. 1843년에 그들에게 주를 바라보게 했던 바로 그 증거가 1844년에는 그분을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대다수가 1843년에 그들의 믿음을 특징지었던 그 열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의 실망이 그들의 믿음을 식게 했다.

요한이 10장에서 제시하는 밀러파의 역사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역사이다. 메시지를 가지고 강림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강림은 각각 역사의 시작을 표시하며, 그 역사는 둘 다 실망으로 끝났다. 요한은 두 천사의 전체 역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가 메시지와 함께 강림한 이후에도, 1863년의 반역으로 인한 실망은 메시지로 시작하여 실망으로 끝나는 기간에 대한 세 번째 증거를 제공한다.

2020년 7월 18일에 있었던 셋째 천사의 운동의 첫 실망은 밀러주의자들의 첫 실망과 상응하는 것이었다. 어떤 진리가 봉인되었는데, 이는 밀러주의자들의 첫 실망을 초래한 일부 계산상의 오류를 주께서 손으로 가리심으로써 1844년의 진리가 봉인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그 뒤 그 오류가 이해되었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그분의 손을 거두셨으므로 그 오류의 봉인이 풀렸다. 2020년 7월 18일의 그 오류는,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고 선포하시던 1844년 10월 22일에 그분의 손을 들어 올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초래되었다.

첫째 천사의 첫 실망에 속한 빌라델비아 운동이었던, 셋째 천사의 라오디게아 운동의 첫 실망이었던, 그분의 손은 이정표를 나타낸다. 1844년 4월 19일과 2020년 7월 18일에 그 실망은 흠어짐의 때를 초래했다. 1840년 8월 11일이나 2001년 9월 11일에 모였던 이들은 흠어졌고, 그 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2001년 9월 11일부터 한 백성을 모으기 시작하셨다. 이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보여 주듯, 신적 표징이 임할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시지, 그 이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흠어짐 후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신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세례 때부터 제자들을 모으셨고, 십자가가 초래한 흠어짐 이후에 제자들을 두 번째로 모으기 시작하셨다. 2023년 7월에 시작된 두 번째 모으심에 대한 예언적 사실은 2020년 7월 18일에 봉함되어 있던 것의 일부였으나, 그것은 분명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 속한 한 요소였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2020년에 일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뿔을 꺾었다. 2023년 7월에 주님은 마지막 때의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기 시작하셨다. 그 모으는 과정은 거룩한 밀러주의 역사 안에 표상되어 있으며, 그 역사 안에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시는 일에 대한 두 명의 역사적 증인이 있다. 그 모으는 과정은 2023년 7월까지 봉해져 있던 예언적 요소이다. 그분의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시는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 동안, 일곱에 속한 여덟째 대통령의 두 번째 선거 직전에 성취된다.

1840년 8월 11일, 주님께서 밀러주의 운동을 결집시키셨고, 1842년 5월에 출판된 1843년 도표를 제시함으로써 그 결집을 표시하셨다. 그 도표는 토대가 되는 메시지를 나타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밀러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계셨기 때문이다. 1840년 8월 11일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강림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세례와 상응하며, 그 세례는 여러 의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시작하신 때를 표시했다.

"요한과 안드레와 시몬, 빌립과 나dana엘이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기독교 교회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했다.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러자 그 둘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찾아 그를 구주께로 오라고 불렀다. 이어서 빌립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나dana엘을 찾아 나섰다." 시대의 갈망, 141.

1798년 끝의 때로부터 1840년 8월 11일까지 윌리엄 밀러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표했지만,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강림했을 때, 곧 그리스도의 세례 때 성령의 강림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주께서 기초를 이룬 제자들을 '모으셨다'. 이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했을 때인 2001년 9월 11일에 그리스도께서 말세의 백성을 모으셨다고 증언하지만, 밀러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봉인되어 있던 일곱 천둥의 한 요소로 시험을 받아야 했고, 그 후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실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세 백성의 두 번째 모임은 다니엘 11장 11절의 맨 끝부분에 제시된 역사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승리 직전이었고, 러시아와 푸틴의 예언적 증언이 끝나는 12절 직전이였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11절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일치하는데, 그곳에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난다.

거룩한 밀러주의 역사에서, 주께서는 1844년 4월 19일의 실망 이후 자신의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기 시작하셨고, 그때 주께서 그들을 모으는 데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와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지체하는 때'를 성취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다. 밀러주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이 표상되어 있음을 알아보아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아야 했다. 주께서는 실망한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들어 올려지는 기호의 한 예증을 보여 주심으로, 진실하지만 실망한 자신의 백성과 단지 명목상 그분의 백성인 자들 사이의 구별을 강조하셨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서서 백성을 위한 깃발이 될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찾아올 것이요, 그의 안식은 영광스러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곧 두 번째로 손을 펴사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남아 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리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리라. 이사야 11:10-12.

예언자 예레미야가 1844년 4월 19일에 실망한 사람들을 대변할 때, 그는 더 이상 '조롱자들의 회중'과 교제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는데, 그들은 1843년의 실패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대변한 이들이 거짓 예언자라는 증거로 삼았다.

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주의 손 때문에 나는 홀로 앉았다.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15:17.

"조롱자들의 모임"은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이들을 쫓아냈다.

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교회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소망에 관해 침묵하기로 동의했으나,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그분이 그들에게 맡기신 진리들을 이처럼 숨기는 것을 금한다고 느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믿음을 표명했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회의 교제에서 끊겨진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감당한 이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이 매우 귀했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내쫓은 너희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였으나, 그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나타낼 것이며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사야 66:5. 대쟁투, 372.

주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기치를 들어 올리실 때, 그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의 남은 자, 곧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기 위해 두 번째로 손을 펴실 때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아 있지 않다.

'이새의 뿌리'는 두 혈통, 곧 유대교 내부의 한 혈통과 유대교 외부의 혈통의 결합을 상징하며, 예수의 혈통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는 높이 들린 기치가 신성과 인성의 결합된 상태와 경험 안으로 영원히 인쳐진 한 백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미는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요새'라는 상징으로도 제시된다. 10절에서는 요새, 곧 머리에 대한 예언적 이해를 통해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치는 때가 추론된다. 11절의 역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주께서는 실망한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기 위해 두 번째로 그 손을 펴신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의 증언을 골격으로 삼아, 우리는 일요일 법령 직전에 예언적 역사 속으로 침투하는 교황권을 식별했다. 우리는 트럼프로 대표되는 공화당의 뿌리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되어 교회와 국가를 결합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마카비로 대표되는 개신교의 배도한 뿌리의 선이 있다. 그 구절들이 나타내는 같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일곱 우레의 선, 곧 열 처녀의 비유의 선을 적용하여 십사만 사천의 경험을 식별하고, 아울러 참된 개신교의 뿌리의 사역의 윤곽을 보여 주는 세 천사의 기별의 선도 적용한다. 그 역사에서 참된 개신교의 뿌리와 관련된 사건들 가운데 하나는 두 번째 모으심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에서 두 번째 모으심이 있었고, 1844년부터 1863년에 이르는 셋째 천사의 역사에서도 또한 있었으며, 이는 주께서 흩어진 자신의 양 떼를 모으시려고 두 번째로 손을 펴셨음을 증언하는 밀러 운동사의 두 증인을 세운 것이다.

9월 23일에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시기를, 그분이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하시려고 두 번째로 손을 펴셨으며, 이 모으는 때에는 노력을 갑절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흠여짐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타격을 받아 찢겼으나, 이제 모으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싸매실 것이다. 흠여짐의 때에는 진리를 퍼려는 노력들이 거의 효과가 없었고,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나, 모으는 때,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려고 손을 펴셨을 때에는 진리를 퍼려는 노력들이 본래 의도된 효과를 낼 것이다. 모든 이는 이 일에 하나 되어 열심을 내야 한다. 나는 지금 모으는 때에 우리의 지침으로 삼을 본보기로 흠여짐의 때를 예로 드는 것이 잘못임을 보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그때 하신 것보다 더 행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모아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문집, 74쪽.

'Early Writings'의 부록에서 화이트 자매는 앞서 인용한 언급을 설명한다:

3. 74쪽에 나오는, 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하시려고 다시 한 번 손을 펴셨다'는 그 견해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들 사이에 한때 존재했던 연합과 힘,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자신의 백성을 연합시키고 일으키기 시작하셨다는 사실만을 가리킨다. Early Writings, 86.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를 대표하는 일곱 우레의 거룩한 역사는, 1844년 10월 22일부터 1863년의 반역에 이르는 거룩한 역사를 예표하였다. 줄에 줄을 더해 보면, 첫 번째 역사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예시를 나타냈고, 두 번째 줄은 미련한 처녀들의 예시를 보여 주었다. 두 역사는 먹어야 할 메시지를 가지고 한 천사가 내려왔을 때 시작되었다. 두 역사에서 천사의 도착은 흠여짐을 초래하는 시험의 과정을 시작했고, 1849년 무렵에는 주께서 다시금 두 번째로 손을 펴셔서 이번에는 1844년 10월 22일에 흠여진 이들을 모으시려 한다는 것을 화이트 자매에게 보여 주셨다.

그들은 대실망으로 인해 흠여졌다. 이는 1844년 4월 19일에 지혜로운 자들이 첫 실망으로 흠여졌던 것과 같았다. 두 번째 모임은 주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연합시키고 일으키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 번째 모임에서 주님의 일에는 메시지로 서로 하나가 되어 있고 인성이 그의 신성과 연합된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것이 포함된다. 그 깃발의 목적은 하나님의 다른 양 떼를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것이며, 이는 남녀가 그 깃발을 봄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기치는 일요법령의 시험의 때에 그들의 인성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한 자들로 이루어진 군대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모임은 '이새의 뿌리'를 지목하며, 그가 들려져 기치가 되어, 기치에 의해 모여든 이방인 룻이 보아스와 연합되는 일과, 보아스가 십사만 사천의 상징일 뿐 아니라 룻을 위해 값을 치르고 그녀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구속주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룻의 이중적 예언 상징을 짚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타락한 인성의 육체를 입어 성육신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셨다. 들려진 그 기치는 메시지로 연합된 자들이며, 일요법령 이전에 그들의 인성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성경은 연구하면 할수록 그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 학생이 어느 방향으로 눈을 돌리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유대 제도의 의의는 아직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그 의식과 상징 속에는 광대하고 심오한 진리들이 그림자로 나타나 있다. 복음은 그 신비를 여는 열쇠이다. 구속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통해 그 진리들이 우리의 깨달음에 열려진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놀라운 주제들을 이해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지식의 더 큰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진리들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한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말세에 관한 예언들은 특별히 우리의 연구를 요구한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진리로 가득하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떤 변명이라도 반갑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 요한을 통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을 여기 밝히셨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3.

'영생은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3. 어찌하여 우리는 이 지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이 영광스러운 진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나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 떨리지 않으며, 우리의 온 존재를 사무치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모든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셨다. 수천 명이 이 생명의 우물에서 물을 길었으나 그 공급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수천 명이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바라봄으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그들의 심령이 그들 속에서 불타오르며 그분의 성품을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분이신지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어떤 존재인지 증언한다. 그러나 이러한 탐구자들도 이 장엄하고 거룩한 주제들을 다 고갈시키지 못했다. 또 다른 수천 명도 구원의 신비를 찾아 탐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 사명의 성격을 깊이 묵상할수록, 진리를 발견하려는 매 시도마다 빛이 더욱 분명하게 비쳐 나올 것이다. 새롭게 탐구할 때마다 지금까지 펼쳐진 것보다 더 깊고도 흥미로운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 주제는 다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속죄 희생과 중보 사역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계속되는 한 부지런한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며, 셀 수 없는 세월을 지닌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는 외칠 것이다. '경건의 비밀은 크도다.'

"영원에 이르러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깨우침을 받았더라면 우리의 이해를 열어 주었을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의 주제는 영원한 세월 내내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혀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열어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셨으나, 그들이 믿음이 없어 붙잡지 못했던 진리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영원무궁토록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영광의 새로운 면모가 끊임없이 드러날 것이다. 끝없는 세월 동안 신실하신 집주인은 자기 보좌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실 것이다." Christ's Object Lessons, 132-134.